

CEO는 눈이 둘이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무슨 똥단지같은 소리냐 싶지만 CEO는 연관(聯關)분석가다. 연관이란 여러가지 사실과 정보들이 일정한 관계에 따라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일이다. 기업이란 그런 연관관계로 얹혀진 법인(法人)이다. 법인이란 법으로 인정된 인간, 생명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발바닥에 못이 박히면 그것은 발바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온 몸이 고통을 체득하고 반응한다. 생명체란 유기체다. 그러므로 기업의 모든 문제는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로 풀어가는데 옳다. 현대기업은 서양산물이지만 치유는 동양의 지혜를 깊이 천착(穿鑿)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중심인물이 CEO다.

애꾸는 원근을 분간할 수 없다

따라서 CEO는 눈이 둘이어야 한다. 애꾸는 원근을 분간 못한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는 장, 단기 계획을 분별하지 못한다. 공간적으로도 대내 문제인지 외부환경 인지 알 수가 없으니 대처도 오리무중, 안개 속같이 애매하게 될 수밖에 없다. 두 눈을 부릅뜨고서야 원근과 완급을 가려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대처할 수 있다. 아예 애꾸는 장님보다 못하다. 장님은 장님임을 자인한다. 때문에 자기 부족함과 겸손을 디디고 다른 정보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정확성을 애꾸보다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 상당수의 CEO가 애꾸다. 처음부터 재무관리로 입사를 하면 CEO가 될 때까지 그 분야만 종사한다. A사 경리과장, B사 경리상무, 요행스레 C사에서 대망의 CEO에 오른다. 그 CEO는 재무관리 밖에 모른다. 생산, 마케팅, 인사 등 경영의 제반기능과 관계를 전체로 보는 눈이 부족하다. 그것이 애꾸라는 말이다. 적어도 CEO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와 마케팅, 마케팅과 생산을 연관시켜 볼 줄 알아야 한다. 또 단기성과에 눈이 멀어(그나마 있는 한쪽 눈조차 감으니) 대세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조물주의 함의(含意)를 헤아려야 한다

CEO는 두 눈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라는 조물주의 함의를 따라야 한다. 말단일때 와 달리 윗자리에 오르면 위에서 내려다 보기만 한다. 유연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귀도 둘이다. 귀가 둘인 것은 양쪽의 말을 모두 들으라는 뜻이다.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국은 회사내의 일부 친인척이나 어떤 연고의 인맥에 닿는 이들의 말만 듣고 경영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대소리나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사람 마음대로 눈은 감을 수 있으나 귀는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위험(Risk)을 알리는 경보시스템 역할을 한다. 코는 하나이나 콧구멍은 두개다. 냄새를 맡고 숨을 쉰다. CEO의 코는 돈벌이가 되는 곳을 맡아내야 하고 또 기업의 새 바람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CEO의 코는 또 부패한 곳을 맡아내서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CEO가 썩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입은 맛을 보고 먹고 마신다. CEO의 입은 기업에 자양분이 될만한 각종 물적, 인적, 지적 가치를 먹어서 성장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니 CEO의 입이 부정한 뽕땅을 먹어서는 안된다. 건강을 해치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냄새맡고 입은 맛을 보고 피부로는 촉각을 느낀다. 정보를 흡수한다. 유달리 입은 말을 한다. 입은 메시지를 안에서 밖으로 보낸다. CEO의 입은 다각적인 정보에 따른 판단 후 타인에게 뜻을 전달한다. 눈을 통한 비전을 전하고 두 귀를 통한 균형된 전략을 전하고 이윤을 찾아 코와 입이 냄새맡고 소화시켜 사회적 활동을 하도록 말을 한다. 조물주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눈과 귀는 두 개씩이다. 코는 한 개처럼 보이지만 냄새맡는 정보기능은 한개분의 몫이다. 그런데 하나의 입은 먹고 말하는 기능이 둘이다. 그러므로 말은 1/2만 하라는 것 같다. 특히 지도자인 CEO의 입은 경계하라는 것이다. 요즘 말 가지고 먹고사는 CEO가 상당수 있어 경계하고 싶다.